

일본 경제 동향_2016년 3월

(일본의 경기전망과 정책이슈)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 완만한 회복기조 속 약세	2
2. 무역수지 흑자 반전	6
3. 엔고·저주가·저금리	9
4. 해외직접투자 감소 반전	10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2
1. 일본의 경기전망과 정책이슈	12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5
1. 2월 대일 무역적자 확대	15
2. 4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증가	17
V. 참고 자료	19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19
2. 주요 경제 일정	21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4	2015	2015						2016	
			1/4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	112.0	110.9	113.8*	-
GDP증가율(연율,%)	△0.0	0.5	4.6	△1.4	1.4	△1.1(p)	-	-	-	-
국내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69.5	-	20.2	15.8	17.3	16.7(p)	-	-	-
	공공투자	24.5	-	6.8	4.5	5.4	6.6(p)	-	-	-
해외직접투자(조엔)	12.6	-	3.7	4.0	3.8	4.5	1.4	1.4	1.0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기비	2.6	-	△0.3	0.2	0.0	0.1	△0.2	△0.7	-
	전년동기비	2.6	-	2.1	0.1	△0.1	0.0	0.1	0.0	-
실업률(%)	3.6	-	3.5	3.3	3.4	3.2	3.3	3.3	3.2	-
수출(조엔)	73.1	75.6	18.9	18.8	19.0	18.8	6.0	6.3	5.4	5.7
수입(조엔)	85.9	78.5	20.4	19.1	20.0	19.0	6.4	6.2	6.0	5.5
무역수지(조엔)	△12.8	△2.9	△1.4	△0.3	△1.0	△0.2	△0.4	0.1	△0.6	0.2
경상수지(조엔)	2.6	-	4.2	3.8	5.0	3.6	1.1	1.0	0.5	-
환율	달러	105.8	121.1	119.1	121.4	122.3	121.5	122.5	121.8	118.3
	원화(100엔)	996	935	923	905	957	953	940	963	1,017
금리(10년물,%)	0.55	0.36	0.34	0.40	0.40	0.31	0.31	0.30	0.22	0.015
주가(닛케이)	15,460	19,203	18,226	20,058	19,474	19,035	19,582	19,203	17,302	16,347

주: (p)는 2차 속보치 *는 속보치,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 완만한 회복기조속 약세

- '16.1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3.8로 전월비 2.9p 상승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하락

- '16.1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7%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1개월 만에 2,428억 엔 흑자로 반전

- '16.2월 수출은 5조 7,034억 엔 억 엔, 수입은 5조 4,606억 엔

□ (환율) 엔고 가속

- '16.2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15.0엔으로 전월비 2.8% 엔고

* '16.2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60원으로 전월비 4.2% 엔고·원저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 완만한 회복기조 속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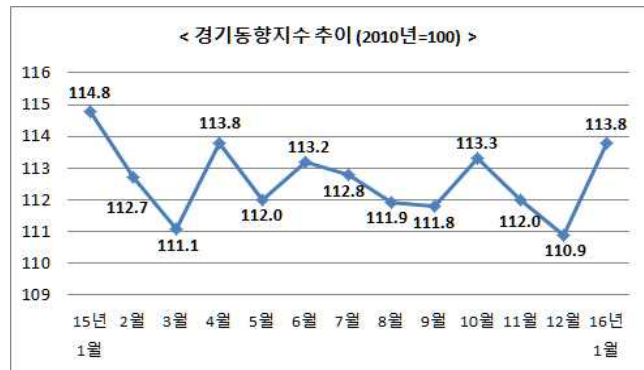
□ (경기기조 판단)

○ 최근 일본 경기는 완만한 회복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약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3월 월례경제보고에서 ‘약세가 보이고 있다’고 경기판단을 하향수정

- 고용·임금의 견조세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 다만, 일본 내각부가 3월 7일 발표한 2016년 1월 경기동향지수(속보치, 일치지수)는 113.8로 2.9p 상승



자료 : 내각부

□ (전 망)

○ 재고조정의 진전 및 자동차 수출의 호조 등을 배경으로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2016년 1분기에는 GDP가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다만, 엔고 진행에 따른 기업수익의 부진 우려, 금융시장의 혼란 및 해외경제의 감속 등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리스크는 상존

-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경제의 불투명성 등으로 수출에 대한 우려는 불식되지 않을 전망

- 경기선행지수도 전월보다 0.4p 하락, 2013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

<GDP>

□ 2015.4분기 GDP성장률 $\Delta 1.1\%$ 로 상향수정

- 일본 내각부가 3월 8일 발표한 2015년 4분기 GDP개정치(실질, 2차 속보치)는 전기비 0.3% 감소, 연율로는 1.1% 감소
- 2월 15일 공표한 1차 속보치 전기비 0.4% 감소, 연율 1.4% 감소에 비하여 상향수정된 것이나 2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1차 속보치나 동일
- 개인소비는 1차 속보치의 0.8% 감소에서 0.9% 감소로 하향수정. 난방기구와 TV등 가전 판매가 부진했던 영향이 큼
- 설비투자는 1차 속보치 1.4% 증가에서 1.5% 증가로 소폭 상향수정
 - 공공투자는 지방공사의 지연으로 1차 속보치의 -2.7% 에서 -3.4% 로 하향수정
- 수출은 1차 속보치의 0.9% 감소에서 0.8% 감소로 상향수정
-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의 경제전망에 의하면, 2016년 1분기 GDP성장률 예측평균치는 전기비 연율 0.81%, 소비와 설비투자 모두 부진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
-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시하라 경제재정재생상은 기업수익이나 임금소득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어 완만한 회복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
 - 경제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의 조기편성이 최대 경기대책이라고 말하는데 그쳐, 당분간 대형 경기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p) >

구 분	2014	2015	2014			2015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전기비			$\Delta 2.0$	$\Delta 0.6$	0.5	1.1	$\Delta 0.4$	0.3	$\Delta 0.3$
전기비연율	$\Delta 0.0$	0.5	$\Delta 7.9$	$\Delta 2.5$	2.2	4.6	$\Delta 1.4$	1.4	$\Delta 1.1$
전년동기비			$\Delta 0.3$	$\Delta 1.5$	$\Delta 1.0$	$\Delta 1.0$	0.7	1.7	0.7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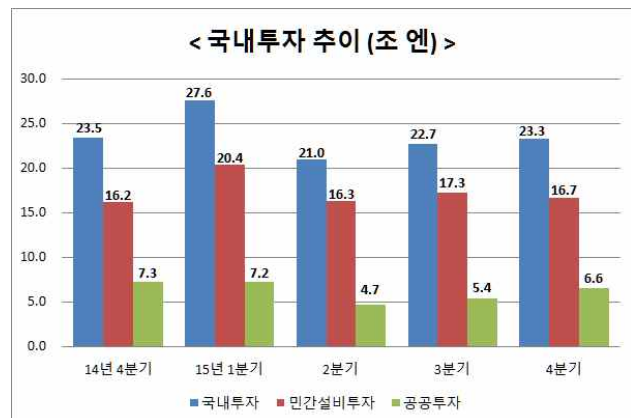
<국내 투자>

□ '15.4분기 국내투자 GDP의 18.0%

- '15.4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명목기준)규모는 전기비 2.6% 증가한 23.3조엔

□ (민간설비투자)

- '15.4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4.1% 감소한 16.7조 엔, 국내 투자의 71.2%를 차지
- '15.4분기 설비투자는 실질기준 전기비 1.5% 증가로 2분기 연속 증가했으나, 최근 엔고 진행으로 인한 기업수익의 감소 우려가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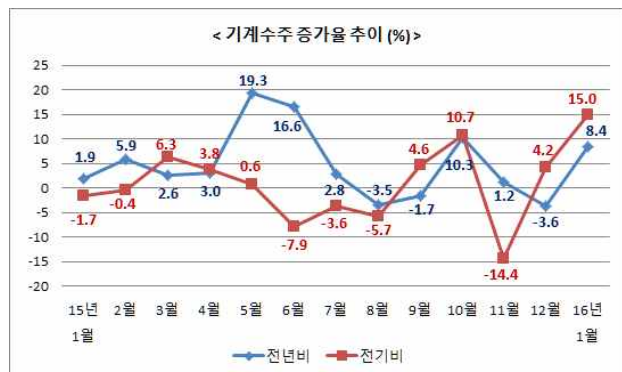


자료 : 내각부

- 일본은행의 단기경제관측조사(2015년 12월)에 의하면, 2015년도 대기업/전산업의 설비투자계획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설비과잉감도 개선되는 경향

□ (공공투자)

- '15.4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23.9% 증가한 6.6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28.8%를 차지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최근 공공투자는 완만한 감소경향

- 2016년 2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년비 2.2% 감소, 1월의 공공공사 수주액도 2.0% 감소

- 다만, 2015년 12월에 결정된 3.3조엔 규모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공공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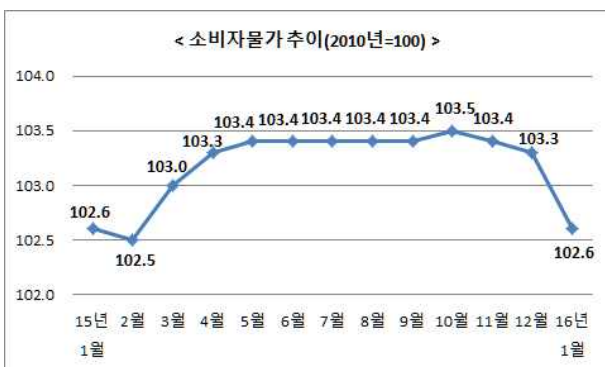
□ '16.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7% 하락

- '16.1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102.6(2010년= 100)으로 전월비 0.7% 하락
 - 식료품(생선식품 제외)의 상승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유가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품목의 가격하락을 상쇄
- 향후 유가하락에 의한 에너지 관련제품의 마이너스 기여는 계속되는 한편, 일본은행이 2%의 물가상승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했으나 아직까지 그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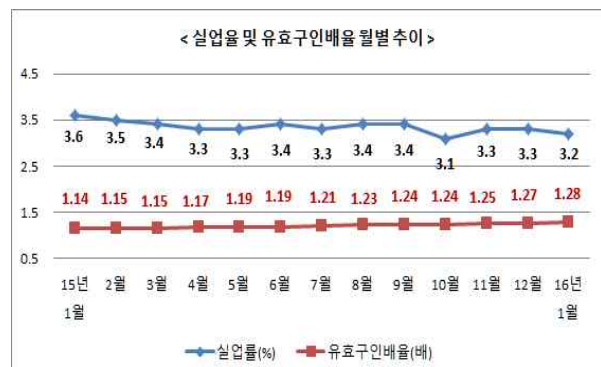
<실업률>

□ 고용사정 개선경향 지속

- '16.1월 완전 실업률은 전월보다 0.1%p 하락한 3.2%
 - 15-24세의 청년실업률은 전월보다 0.2%p 하락한 5.0%
- 16.1월 유효구인배율은 1.28배로 1991년 12월(1.31배)이후 최고수준
- 일본 정부는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어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복지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무역수지 흑자 반전

□ (총 합) 무역수지 1개월 만에 흑자 반전

- '16.2월 무역수지는 전월의 적자에서 2,428억 엔 흑자로 반전
 -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임
 - 對 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8,136억 엔에서 3,824억 엔으로 크게 축소된 한편, 對 미국 무역흑자는 전월의 5,439억 엔에서 6,041억 엔으로 축소된 것이 흑자 반전에 기여

< 2016년 2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6.1월			2016.2월			2016.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수 출	5.4	-12.9	-15.6	5.7	-4.0	6.6	11.1	-8.3
수 입	6.0	-18.0	-3.2	5.5	-14.2	-9.0	11.5	-16.1
수 지	-0.6	-45.0	-	0.2	-	-	-0.4	-75.0

자료 : 재무성

□ (수 출) '16.2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증가

- '16.2월 수출은 5조 7,034억 엔으로 전월비 6.6% 증가. 전월의 감소에서 반전
 - 전년동월대비로는 4.0% 감소
 - 수출물량은 전월비 9.4% 증가
- 5대 수출 품목은 전월과 변동이 없는 가운데 자동차부품과 철강의 수출 순위가 바뀌었고,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이 증가
 - 원동기의 수출증가폭이 18.6%로 가장 크고, 자동차부품의 수출증가폭도 10% 이상 증가

< 2016년 2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

순위	품목	2016.1월			2016.2월			2016.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자동차	8,689	-1.1	-21.6	9,399	0.7	8.2	18,088	-0.2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2,834	-11.2	-6.8	2,681	-9.6	-5.4	5,515	-10.4
3	자동차부품	2,311	-14.1	-26.0	2,644	-4.3	14.4	4,955	-9.1
4	철강	2,311	-31.3	-16.4	2,410	-24.1	4.3	4,721	-27.8
5	원동기	1,739	-13.1	-22.4	2,063	-4.4	18.6	3,802	-8.6

자료 :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도 대만을 제외하고는 전월보다 수출이 증가

-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폭이 9.3%로 가장 큼

- 對 한국 수출은 전월비 5.0% 증가

< 2016년 2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

순위	국가	2016.1월			2016.2월			2016.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미국	11,287	-5.3	-16.5	12,184	0.2	7.9	23,471	-2.5
2	중국	8,600	-17.5	-25.7	9,339	5.1	9.3	17,939	-7.1
3	ASEAN	7,735	-20.2	-16.0	8,422	-13.9	8.9	16,157	-17.0
4	EU	6,325	-3.6	-14.6	6,785	9.2	7.3	13,110	2.6
5	한국	3,844	-17.4	-9.3	4,037	-9.0	5.0	7,881	-13.2
6	대만	3,344	-8.6	-11.6	3,048	-5.3	-8.9	6,392	-7.1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6.2월 수입은 금액, 물량 모두 감소

○ '16.2월 수입은 5조 4,606억 엔으로 전월비 9.0% 감소

- 수입물량도 전월비 5.9% 감소

- 유가하락이 수입액 감소의 주된 요인

- 5대 수입품목도 전월과 변동이 없는 가운데, 수입순위에서는 의약품과 통신기의 순위가 바뀌었음
 - 액화천연가스와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감소
 - 통신기의 수입 감소폭이 -41.6%로 가장 컸으며, 이어 원유의 수입도 20%에 가까운 감소폭을 보임
- 주요 지역·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이 감소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21.3%로 가장 큼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은 -2.7%로 2개월 연속 감소

< 2016년 2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

순위	품목	2016.1월			2016.2월			2016.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1	원유	4,717	-43.4	-19.8	3,801	-33.3	-19.4	8,518	-39.3
2	액화천연가스	3,498	-55.4	-19.4	3,550	-43.5	1.5	7,048	-49.8
3	의약품	2,479	27.8	-10.6	2,805	51.9	13.2	5,284	39.5
4	의류·동부속품	2,658	-9.5	0.5	2,633	-14.1	-1.0	5,291	-10.9
3	통신기	3,069	29.7	55.8	1,795	-16.6	-41.6	4,864	7.6

자료 : 일본 재무성

< 2016년 2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

순위	국가	2016.1월			2016.2월			2016.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1	중국	16,736	-6.0	7.3	13,163	-20.8	-21.3	29,899	-13.2
2	ASEAN	9,018	-21.8	-4.4	8,946	-9.9	-0.8	17,964	-15.8
3	EU	7,198	6.0	-4.3	7,120	14.2	-1.1	14,318	10.0
4	미국	5,848	-9.7	-1.4	6,143	5.1	5.0	11,991	-2.9
5	호주	2,929	-37.3	-10.4	2,777	-23.9	-5.2	5,706	-31.4
8	한국	2,301	-23.3	-14.4	2,239	-13.5	-2.7	4,540	-18.8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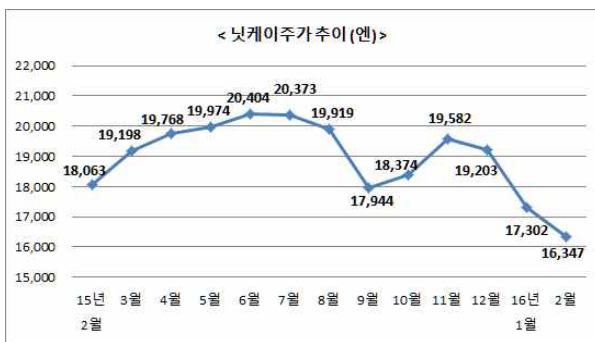
3.엔고 · 저주가 · 저금리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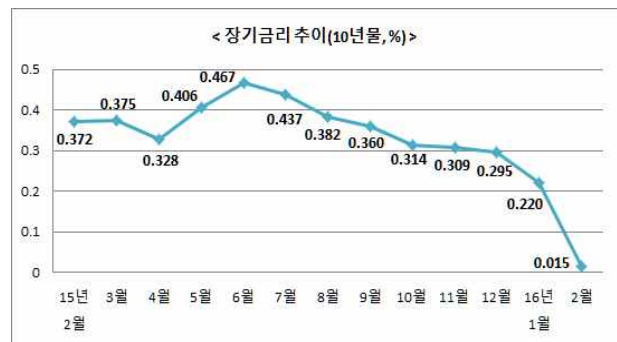
- '16.2월 평균 주가는 국제 유가하락과 유럽과 미국에서의 신용불안 등 세계경제의 불안으로 전월비 5.5% 하락한 16,347엔

□ (금 리)

- '16.2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과 함께, 유럽과 미국에서의 신용불안 등을 배경으로 한 일본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전월비 93.2% 하락한 0.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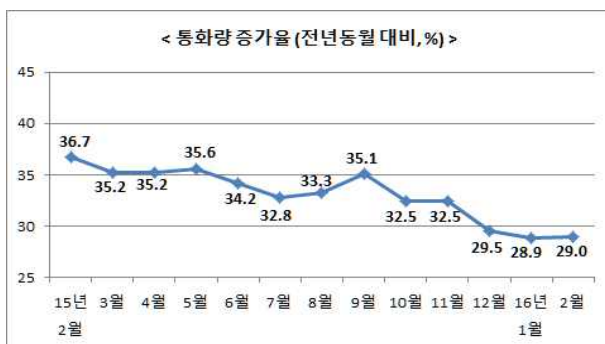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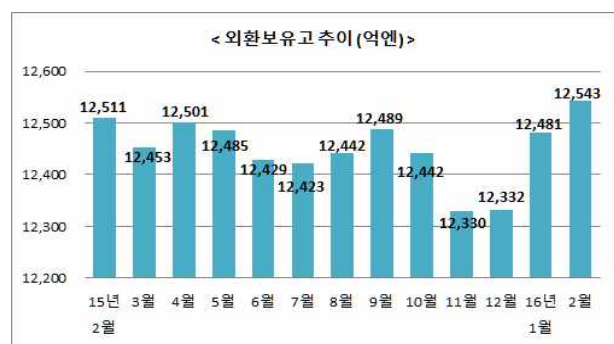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6.2월 본원통화(머니리베이스 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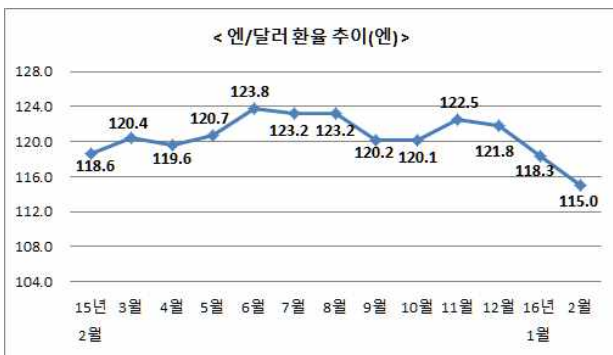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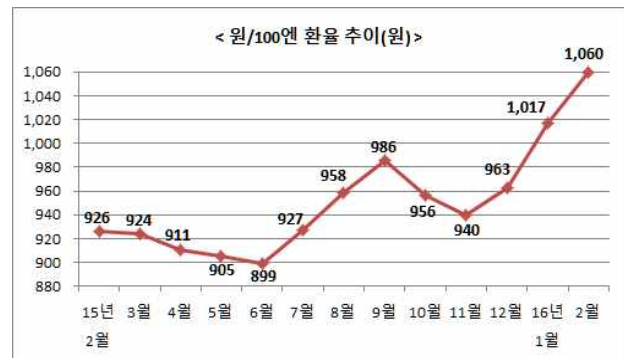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환 율)

- ‘16.2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2.8% 하락한 115.0엔(엔고)
- ‘16.3월 들어서도 엔고세가 가속, 3월 23일 기준 113.39엔
- 최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결정의 영향에 따른 유럽과 미국에서의 신용불안 등으로 안전자산인 일본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엔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앞으로 미국 금리의 재인상과 함께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엔저세로 반전될 전망
- ‘16.2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60원으로 전월의 1,017원에 비하여 4.2% 엔고·원저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감소 반전

□ (동 향) 최대 투자지역인 미국에 대한 투자급감 영향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가 감소

- ‘16년 1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10,225억 엔으로 전월비 28.7% 감소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4	2015	2015					2016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1월	12월
금 액		127,682	159,884*	37,100	39,888	38,427	44,471	13,503	14,349
증가율	전기비	-4.6	25.2	-17.3	7.5	-3.7	15.7	-18.7	6.3
	전년동기비	-4.6	25.2	-11.4	39.6	112.5	-0.9	61.3	6.7
									1월
									10,225
증가율	전기비	-4.6	25.2	-17.3	7.5	-3.7	15.7	-18.7	6.3
	전년동기비	-4.6	25.2	-11.4	39.6	112.5	-0.9	61.3	6.7
									-28.7
									-17.4

자료 : 일본 재무성

□ **(지역별)**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 급감,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

○ 對 미국 투자는 전월비 71.9%의 큰 폭 감소

○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월비 25.4% 증가

- 그러나 對한국 투자 51.5% 감소, 對중국 투자 24.1% 감소

<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국가별	2015		2015						2016	
			4분기		11월		12월		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대세계	159,884	25.2	44,471	15.7	13,503	-18.7	14,349	6.3	10,225	-28.7
아시아	38,524	1.8	7,240	-44.0	2,953	69.6	2,546	-13.8	3,193	25.4
중 국	10,685	48.5	2,825	32.2	1,088	21.2	839	-22.9	637	-24.1
한 국	1,994	-40.1	-35	-	82	-	292	256.1	141	-51.5
북 미	54,363	16.4	21,098	77.2	1,679	-85.5	7,855	367.8	2,136	-72.8
미 국	53,052	18.1	20,610	78.1	1,567	-86.2	7,705	391.7	2,166	-71.9
중남미	11,165	48.6	789	-72.9	144	-73.8	96	-33.3	411	328.1
유 럽	42,635	54.8	14,262	57.8	8,373	282.7	3,701	-55.8	4,056	9.6
대양주	10,165	68.9	393	-62.3	206	-2.4	-24	-	219	-
중동	1,528	189.9	318	-30.4	92	-21.4	109	18.5	137	25.7
아프리카	1,504	-2.1	370	13.5	55	-78.0	65	18.2	73	12.3

자료 : 일본 재무성, * 전기비

□ **(특이점)**

○ 2015년 들어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가 가속화, 2015년 11월 9일까지의 시점에서 매수총액이 10조 44억 엔으로 9년 만에 과거 최고를 갱신

- 해외 성장시장을 겨냥한 금융 및 물류 관련 일본 내수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대형 M&A, 엔저에 따른 엔화환산 금액의 증가가 매수액 증가로 이어짐

III. 일본의 주요 정책

일본의 경기전망과 정책이슈

1. 최근 경기 현황

- 일본정부는 3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판단을 하향수정
 - 일본정부는 해외경제의 감속과 시장의 혼란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경제대책이나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 실시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일본정부의 하향수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노사교섭임
 - 일본 대기업들은 3년 연속 임금인상을 실시하겠다고 회답했으나,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베이스 업에 대해서는 과거 2년에 비하여 소폭으로 인상될 예정
- 이시하라 경제재정상은 월례경제보고 발표 직후, 고용과 임금환경의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실질임금은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인정
- 주가하락도 겹쳐 소비가 정체되고 있어 1월 소매업판매액은 전월비 0.4% 감소,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내구소비재의 부진이 계속
- 3월 월례경제보고에서는 개인소비가 전월까지 전체적으로는 견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표현에서 소비자마인드가 답보상태에 있다는 표현으로 하향수정
 - 개인소비에 대한 하향수정은 7개월만임
- 앞으로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고 있음
 - 2016년 초 이후 주가하락으로 소비자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하여 주가하락으로 부유층들은 소비를 늘리지 않고, 일반 소비자들은 소비절약이 강해짐
- 기업수익도 전월까지는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표현에서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개선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표현으로 1년 7개월 만에 하향수정

- 법인기업통계에서는 2015년 4분기의 경상이익이 전년동기비 1.7% 감소. 해외경기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감소폭이 21.2%로 매우 컸음
- 설비투자과 수출은 상향 수정했으나 해외경제와 기업수익의 감속으로 개선경향이 지속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
- 월례경제보고에서는 해외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자본시장 변화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해외경제는 약세가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2개월 연속 판단을 현상유지

2. 경기 전망 : 디플레이션 탈출은 어려워

- 이토츠키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016년도에 걸쳐 일본의 경기는 회복될 것이나 디플레이션 탈출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전반까지는 해외수요의 약세와 엔고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의 둔화에 더하여 주가하락 등에 의한 소비도 부진하기 때문에 경기는 완만한 확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다만 2016년도 후반에는 미국 경제의 확대를 배경으로 다시 엔저경향이 정착, 수출이 회복하는 외에 소비세 인상 전 가수요에 의해 소비와 주택투자의 증가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경기확대속도가 가속될 전망
- 기업의 설비투자는 2016년도 후반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016년도 실질 GDP성장률은 2015년도 0.7%에서 1.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낮은 성장으로는 디플레이션 탈출이 어려움
- 디플레이션 압력의 지표인 수급갭(수요와 공급력의 차이)을 시산하면 2015년 3분기의 GDP대비 -1.3%에서 4분기의 마이너스성장에 의해 -1.8%로 확대, 이후에는 경기확대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2017년 1분기에는 수급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
- 다만, 2017년 2분기에는 소비세 인상에 의한 경기하강이 예상되어 2017년도 실질 GDP성장률은 전년비 0.1%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수급갭은 다시 확대, 수급면에서 디플레이션 압력 해소는 보류될 전망

- 2016년도에도 유가하락을 예상해도 이미 진행된 엔고에 의한 수입품가격 하락이 물가전체를 떨어뜨릴 것임
- 수요의 약세와 엔고진행이 기대와 현실의 양면에서 디플레이션 탈출을 저해할 것으로 보임
- 또한 2017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비 2%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중 1.4%p 정도는 소비세 인상분이며 실제로는 0.6%정도임

3. 주목되는 2가지 정책 이슈

- 이토츠키 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탈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선택지로 2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일본은행의 추가금융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는 점임
 -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시점에서도 엔고세가 이어지고 있다면, 목표물가상승율 달성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완화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
 - 이번에는 정책금리의 마이너스 폭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월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시에 보류했던 양적인 확대, 즉 국채와 ETF 등의 매입액 증액 등을 새로운 메뉴로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둘째, 유력한 선택지는 소비세 증세임
 - 임금 상승속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전회의 소비세율 인상폭 3%를 소득 증가에 의해 거의 메꾸어지지 않고 있음
 - 소비세율 인상은 소비자들에 대한 크나큰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 디플레이션 탈출을 저해하게 됨
 - 증세 보류가 재정건전화의 지연으로 이어지기는 하나, 디플레이션 상황에 비하여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재정재건이 촉진되는 것도 사실임
 - 5월 18일 발표예정인 2016년 1분기 GDP성장률과 앞으로 환율동향 여하의 부분은 있으나 7월에 예정된 참의원선거가 소비세 증세보류의 시비를 묻는 장이 될 가능성이 큼
- 아베 총리는 증세 보류의 조건으로 금융위기와 같은 세계경제의 대혼란을 들고 있음
 - 현재는 기업수익이나 고용환경이 대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이기는 하나, 앞으로 방심은 금물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임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2월 대일 무역적자 확대

□ (총 합)

- '16.2월 대일무역적자는 전월비 444백만 달러 증가한 1,705백만 달러
 -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5.0%에서 4.7%로 저하된 반면,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9.8%에서 11.7%로 상승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7.2%에서 7.8%로 상승

< 2016년 2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달러,%) >

	2016.1월			2016.2월			2016.1-2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 수출	1,831	-18.7	-11.6	1,700	-15.0	-7.2	3,507	-17.5
대일 수입	3,092	-19.2	-16.7	3,406	-11.3	10.2	6,496	-15.2
무역 수지	-1,261	-315	-379	-1,705	-131	444	-2,989	-423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6. 2월 대일 수출은 1,700백만 달러로 전월비 7.2% 감소, 2개월 연속 감소
 - 동 기간 중 총수출 증가율 -0.5%에 비하면 대일 수출이 크게 부진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6.1월	-18.7	-11.6	-18.8	-13.6	-18.0	-3.2
2016.2월	-15.0	-7.2	-12.2	-0.5	-14.2	-9.0
2016.1-2월	-17.5	-	-15.7	-	-16.1	-

- '16.2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은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수출순위 면에서 전자 부품과 정밀화학제품이 각각 광물성연료와 수송기계를 제치고 2위와 4위를 차지
- 대일수출 증가품목 중, 농산물의 증가폭이 20.0%로 가장 크고, 이어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증가폭이 14.1%
- 대일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광물성연료의 감소폭이 -41.8%로 가장 크고, 이어 수송기계의 감소폭이 -33.1%

< 2016년 2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6.1월			2016.2월			2016.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1,831	-18.7	-11.6	1,700	-15.0	-7.2	3,507	-17.5
1	철강제품	223	-15.9	-10.4	231	-2.6	3.6	454	-9.6
2	전자부품	146	-21.5	-5.8	134	-28.1	-8.2	280	-24.8
3	광물성연료	213	-41.5	-26.3	124	-57.9	-41.8	326	-50.7
4	정밀화학제품	98	-13.1	-11.0	100	2.8	2.0	199	-5.7
5	산업용전자제품	100	-57.4	-24.8	92	-52.7	-8.0	192	-55.3
6	수송기계	136	34.8	6.3	91	-7.4	-33.1	227	14.0
7	석유화학제품	78	-32.1	-10.3	89	-11.2	14.1	167	-22.3
8	기계요소공구·금형	84	8.4	3.7	87	23.5	3.6	170	15.5
9	금속광물	77	-9.7	-2.5	81	12.7	5.2	158	0.6
10	농산물	60	-29.9	-26.8	72	-1.6	20.0	132	-16.9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6.2월 대일수입은 3,406백만 달러로 전월비 10.2% 증가, 전월의 16.7% 감소에서 큰 폭으로 반전
- 총수입의 7.6%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대일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는 일본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된 요인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6.1월	-19.2	-16.7	-20.0	-11.4
2016.2월	-11.3	10.2	-14.6	-7.6
2016.1-2월	-15.2	-	-17.5	-

- '16.2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도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대일수입 순위 면에서 산업용전자제품과 정밀기계가 각각 수송기계와 플라스틱제품을 제치고, 6위 및 7위로 뛰어오름
- 플라스틱제품과 수송기계를 제외한 8개 대일수출 증가품목 중, 산업용전자제품의 증가폭이 45%로 가장 크고, 이어 산업기계가 36.2%, 정밀기계와 기초산업기계도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대일수입 감소품목 중에서는 수송기계의 감소폭이 -6.6%로 큼

< 2016년 2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6.1월			2016.2월			2016.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총 계	3,092	-19.2	-16.7	3,406	-11.3	10.2	6,496	-15.2
1	전자부품	424	-17.9	26.9	424	-16.7	0.0	848	-17.3
2	철강제품	380	-27.5	-7.5	386	-25.5	1.6	766	-26.5
3	정밀화학제품	287	-0.6	-20.7	327	2.8	13.9	614	1.1
4	석유화학제품	284	-28.2	-24.3	292	-22.8	2.8	575	-25.8
5	기초산업기계	209	-20.2	-22.0	251	13.8	20.0	460	-4.6
6	산업용전자제품	171	-10.6	-29.6	248	23.4	45.0	419	6.8
7	정밀기계	160	-42.7	-40.1	200	-26.8	25.0	360	-34.8
8	산업기계	130	-0.7	-27.0	177	13.6	36.2	307	7.1
9	플라스틱제품	175	-12.0	-8.9	174	-10.8	-0.6	349	-11.3
10	수송기계	182	-1.4	-25.1	170	-27.0	-6.6	352	-15.7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4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증가

□ (동 향) '15.4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큰 폭 증가로 반전

- '15.4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470백만 달러로 전기비 111.7% 증가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의 증가율 73.7%를 크게 상회

- 건수로도 전기비 17.9% 증가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

	2014		2015		2015.1분기		2015.2분기		2015.3분기		2015.4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352 (21.3)	2,488 (-7.5)	315 (-10.5)	1,665 (-33.1)	85 (-17.5)	289 (-66.0)	84 (-0.2)	684 (136.7)	67 (-20.2)	222 (-67.5)	79 (17.9)	470 (111.7)
전체 외 국인투자	2,463 (-5.6)	19,003 (30.6)	2,698 (9.5)	2,0909 (5.1)	558 (-25.2)	3,555 (-15.1)	742 (33.0)	5,316 (49.5)	624 (-15.9)	4,399 (-17.2)	774 (24.0)	7,639 (73.7)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한·일 기업간 협력 사례)

- 일본 알박테크노 주식회사가 현곡산업단지 내에 있는 피에스테크놀로지 공장 증설을 위해 31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힘(2016.3.23. 평택시사신문)
- 알박그룹은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 내에 한국알박과 한국알박테크노 등 6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진공기술 보유 기업임
- 미쓰이 물산과 한국카본이 자동차와 항공시장 소재기술 개발을 위해 탄소섬유 등 복합소재 가공사업분야에 협업키로 함(2016.3.3. 이데일리)
- 한국카본 측은 미쓰이물산이 한국카본 주식 10%를 취득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해외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힘

□ (시사점)

- 최근의 엔고, 일본 해외투자기업들이 유턴사례,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 등을 대한 투자 유도에 최대한 활용하고, 한일간 정치적 교착상태 완화 등을 통한 차별화된 대한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2016.2월~2016.3월)

□ 국내 기관

- 『일본 마이넘버제도 도입에 따른 IT시장 진출방안』 KOTRA, 2016년3월17일
http://www.globalwindow.org/gw/publishdata/GWPDIN020M.html?SCH_TYPE=SCH_SJ&SCH_VALLUE=&REL_AREA_CD=&SCH_START_DT=&SCH_END_DT=&RowCountPerPage=10&BBS_ID=30&MENU_CD=M10028&UPPER_MENU_CD=M1
- 『일본은행, 금융정책 현상유지 결정』 한국은행, 2016년 3월15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24910&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2&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 일본 장기침체기와 닮은 꼴』 LG경제연구원, 2016년 3월15일
<http://www.lgeri.com/economy/domestic/article.asp?grouping=01010100&seq=100>
- 『해외생산 확대가 수출에 미치는 시사점 - 일본 제조업 사례를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2016년 3월10일
http://www.kiet.re.kr/kiet_web/main.jsp?sub_num=12&state=view&idx=52179&recom=2215&ord=0
- 『[동향분석]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 2016년 3월3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24652&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4&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의 超엔저와 중국의 低성장에 따른 한국 철강산업 위기론의 실체와 대응』 포스코경영연구소, 2016년 2월25일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3828>

□ 일본 기관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ICT전략과 국가전략·경영전략의 통합』 일본경제연구센터, 2016년 3월24일
http://www.jcer.or.jp/policy/pdf/160323_policy1.pdf
- 『TPP 개요와 논점, 각론(상)』 일본 국회도서관, 2016년 3월19일
http://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9914188_po_0902.pdf?contentNo=1
- 『TPP 개요와 논점, 각론(하)』 일본 국회도서관, 2016년 3월19일
http://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9914190_po_0903.pdf?contentNo=1
- 『동아시아의 상호의존과 경쟁관계는 어떻게 변했나』 일본종합연구소, 2016년 3월17일
<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jrireview/pdf/8719.pdf>
-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한일 제조업 비교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소, 2016년 3월17일
<http://www.nistep.go.jp/archives/26093>
- 『2015년판 개발협력백서: 일본의 국제협력』 일본 외무성, 2016년 3월12일
<http://www.mofa.go.jp/mofaj/gaiko/oda/files/000137901.pdf>
- 『일본의 통계 2016』 일본총무성 통계국, 2016년 3월11일
<http://www.stat.go.jp/data/nihon/index2.htm#mokuji>
- 『2030년 일본: 2030년 ICT의 모습과 새로운 기술의 방향성』 노무라종합연구소, 2016년 3월8일
<http://www.nri.com/~media/PDF/jp/opinion/teiki/chitekishisan/cs201601/cs20160105.pdf>
- 『일본과 세계의 구조변화와 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변혁의 방향성』 경제산업성, 2016년 2월27일
http://www.meti.go.jp/committee/sankoushin/shin_sangyoukouzou/pdf/006_04_03.pdf
- 『JETRO 대일투자보고 2015』 JETRO, 2016년 2월24일
https://www.jetro.go.jp/ext_images/_Invest/pdf/refe/jetro_invest_japan_report_20150301jp.pdf

2. 주요 경제 일정

<3월 실적>

일자	주요 내용
1	· '16년도 예산안·관련 법안 중의원 통과
7	· 참의원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
8	· '15년 4분기 GDP 개정치(내각부) : -1.1%(연율 환산), -0.3%(분기) * 속보치 : -1.4%(연율 환산), -0.4%(분기)
9	· 다카하라 원전 운전 정지 임시결정(오오츠 지방재판소)
14	· 일본은행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15일까지) · 호쿠리쿠신칸센 개통 1주년
16	· 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총리관저, ~17일까지) * 세계경제에 대해 국내외 지식인들 의견 청취. 5월까지 예정 · 춘계 노사협상 집중 답변일 · 모노즈쿠리 산업노동조합 춘계노사 협상 답변 설명회
23	· 3월 월례경제보고(내각부)
25	· 2월 소비자물가지수(총무성)
26	· 홋카이도신칸센, 신하코다테호쿠토-신아오모리 간 개통

<4월 예정 >

일자	주요 내용
6	· 일본우수퇴직기술자 기술지도 매칭상담(도쿄, ~7일까지)
7	· G7 외무장관회의(히로시마, ~11일까지)
15	· 제9회 일본경제포럼(한국금융투자협회 빌딩, 11:00~) · IMF/세계은행 춘기총회(워싱턴, ~17일까지)